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hildren's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on Their Aggression

한영대학 유아교육과

강 사 오 채 미

순천대학교 소비자·가족아동학전공

부 교수 공 인 숙**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anyeong College

Lecturer : Oh, Chae-Mi

Dept. of Consumer & Family-Child Studies, Suncheon National Univ.

Associate Professor : Kong, In-Sook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children's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on their aggression. Subjects were 309 (156 boys and 153 girls)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living in Jellanamdo. The questionnaire for the children's parenting behavior evaluation and their aggression was used.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Cronbach's α ,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the children perceived their parents affectionately and rationally and especially, they perceived their mother affectionately and rationally than their father. Meantime, the children perceived their aggression at a low level on the whole.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aggression differed according to the gender.

Fathers' coercive and mothers' permissive parenting predicted the children's proactive aggression. Fathers' coercive, affective and mother's aggression-compensatory parenting predicted children's reactive aggression. Fathers' coercive parenting was only significant predictor for the children's relational aggression and fathers' coercive, aggression-compensatory parenting predicted children's total aggression. Fathers' participation for reducing children's aggression was discussed.

▲주요어(Key Words) :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s), 공격성(aggression), 부모(parent), 아동(child)

* 본 논문은 2006년도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교신저자 : 공인숙 (E-mail : iskong@sunchon.ac.kr)

I. 서 론

공격성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해를 주는 행위이다(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이는 강도나 유형의 차이를 막론하고 인간생활에서 중요한 행동의 일면을 이루고 있으며 폭력이나 범죄와 연결되는 등심각한 문제가 된다. 특히 아동기의 공격성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개인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범죄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청소년 범죄 역시 아동기에 습득된 부적응 행동의 연장선 경우가 많아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 및 문제행동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동의 성장, 발달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부모의 강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공격성을 높이며(Patterson, 1986), 이런 영향은 성인기 범죄율에도 영향을 미친다(Huesmann et al., 2000). 이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좌절감 또는 분노를 유발하거나 부모 자신이 아동의 공격적 학습모델로 작용하여(Bandura, 1977),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대한 적대적인 아동의 공격성향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에 의해 오랫동안 관찰되고 다른 부모와 비교된 결과로 형성되어 비교적 안정된 것이므로 실제의 양육행동보다도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공인숙, 1989). 그런데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어머니의 책임만으로 간주되어온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해서 아버지들의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아버지의 자녀 양육행동이 자녀들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여러 연구(박혜경, 2002; Lamb, 1980)에 따라 아버지가 양육행동을 통해서나, 역할모델로서 아동의 공격성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심을 갖는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내적, 외적 태도 또는 행동을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박성연, 1989; 박혜경, 2002)를 토대로 공격성과 관련된 양육행동을 애정·합리적, 강압적, 허용·방임적 및 공격성에 대해 보상적인 양육행동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은 부모가 사랑과 온정이 있으며, 자녀에게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양육 행동이다. 다음으로 강압적 양육행동은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면 엄격하게 대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며, 부모의 감정대로 비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벌을 사용하거나 강요하는 경우이다.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비지배적,

비요구적이며, 무책임하고 냉담하며 무시를 하는 양육행동으로 아이가 하는 일을 그냥 하게 놔두거나, 아이가 잘못된 일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끝으로 공격성에 보상적인 양육행동은 자녀가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하거나 혹은 공격적이지 못했을 때 핀잔을 주거나 때려주고 오라는 식의 양육행동이다.

그런데 아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지각하는 데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차이가 있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가 온정, 수용적이지만 대체로 덜 허용, 방임적이고 덜 거부, 제재적이며,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허용·방임성이 유의하게 높았고 거부, 제재성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높았다(정인선, 2006). 그에 비해 윤선희(2005)는 아동이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애정적이고 통제적으로 지각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연구 결과가 비일관적이므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영역별로 어떠한지 구명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아동은 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을 다르게 지각하고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여아는 남아보다 아버지를 덜 거부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문경주·오경주, 2002). 그러나 남아가 여아보다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를 높게 지각한다거나, 애정적 양육행동에서 성차가 없다(공인숙, 1989)는 연구처럼 양육 행동의 하위 영역에서의 성차에 관한 결과는 불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을 다르게 지각하는지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공격성의 유형은 크게 외현화 공격성과 내재적 공격성으로 구분된다. 외현화 공격성은 신체적 행동이나 언어처럼 겉으로 표현되는 경우이며, 내재적 공격성은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공격성을 의미한다. Frodi 등(1977)은 공격성을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직접적 공격성, 간접적 공격성으로 나누었는데, 신체적 공격성은 공격대상에게 신체적 상해나 고통을 주려고 의도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등의 행동을 뜻한다. 그리고 언어적 공격성은 언어를 매개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모든 반응을 의미하고, 직접적인 공격성은 화나게 만든 사람을 혹은 공격성을 유발시킨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공격적인 행동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간접적인 공격성은 공격을 유발한 사람이 아닌 다른 표적에 대한 것이거나 혹은 구체적인 표적이 아주 없는 공격적인 행위를 말한다(장미도, 1986, 재인용).

한편, 과거에는 공격성에 관한 연구가 신체적 공격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공격성이 외현화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유형화 되며(Crick & Grotpeter, 1995), 외현화 공격성은 다시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Dodge & Coie, 1987). 즉 주도적 공격성이란 의도적으로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혹은 심리적 손상을 주기 위해 해를 가하는 방식의 공격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반응적 공격성은 다른 사람에 의해 유발된 공격적 행동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고자 보복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방식의 공격성을 의미한다. 끝으로 관계적 공격성은 의도적으로 관계의 조정을 통해, 다른 아동의 우정이나 또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려는 하는 방식의 공격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의 공격성을 유형 별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가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주도적(proactive) 공격성, 반응적(reactive) 공격성, 관계적(relational) 공격성으로 분류하여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공격성은 성에 따라 그 정도와 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여러 연구(이경희·오경자, 1998; Ballargeon, et al., 2007; Crick, 1996; Maccoby, 1991)에 따라 아동의 공격성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공격성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중요한 변수로 여겨져 왔다. 특히 부모의 강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신체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고, 다시 자녀의 신체적 공격성이 부모의 강압적 양육행동을 이끈다는 연구(Patterson, 1986)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공격성 간의 관련성을 지지한다. 또한 부모의 강압적 양육행동이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며, 임상적 문제를 지닌 아동의 부모가 그렇지 않은 아동의 부모보다 보다 통제적이며 비판적임을 종단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Patterson, 1996). 이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귀연·김경연, 2005; 정인선, 2006)에서도 지지된다.

다음으로 부모의 방임적 양육행동 역시 아동의 외현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진다(정인선, 2006; O'Leary, 1995; Patterson, et al., 1990). 그에 비해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신체적 공격성을 감소시키며, 유아와 학령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도 부적 관련성을 보인다(Baker, et al., 2000; Serbin & Karp, 2003). 또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공격성이나 문제행동과 부적 관련을 보이는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공인숙, 1989).

이처럼 어머니와 신체적 공격성이 중심이 되었다는 한계는 있으나,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외현화 공격성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비교적 많은 편이며, 그 결과도 비교적 일관적이다. 그에 비해 관계적 공격성 연구는 비교적 적으며, 주로 부모의 자기보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즉 어머니의 반응성이 낮고 강압적일수록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정인선, 2006; Hart, et al., 1998)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을 낮춘다는 연구(Brown, et al., 2007)가 있는가 하면, 어머니의 신체적 통제와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은 관련이 없다는 연구(Nelson & Crick, 2002)도 있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 관련 연구 결과는 비일관적이며, 또한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행동은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을 높이지만 남아와는 관련이 없었다는 연구(Brown, et al., 2007)를 고려할 때,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방임적 공격성 연구에서 자녀의 성을 포함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동의 공격성은 연령에 따라 형태나 피해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제 2차 성장 급등에 따른 신체적 발달로 공격 행동의 결과가 이전 시기에 비해 심각해진다. 또한 초등학교 5, 6학년의 경우 또래에 대한 반사회적 동조성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기(Berndt, 1979)이므로, 아동이 또래들의 공격행동에 쉽게 동조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5, 6학년의 경우 인지적으로 형식적 조작기로 접어들면서 우정 개념의 변화(Damon, 1977)가 나타나는 등 또래 관계가 재설정 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또래에 대한 공격성 경향이 보다 어린 아동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연구는 주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아동의 외현화 공격 행동인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포함하여, 아동의 공격성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강압적 양육행동,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공격성에 보상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 반응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및 총 공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공격 행동의 예방과 완화를 위한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아동의 공격성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정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남도 동부권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1개교 5학년 남녀학생 187명과 6학년 남녀학생 122명, 총 30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를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설정한 것은 우선 12세 전후가 공격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시기에 아동은 또래에 대한 반사회적 동조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특징이 있으며, 형식적 조작기로 접어들며 또래 관계를 재설정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또래에 대한 공격성 경향도 보다 어린 아동 시기와는 상이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았다.

연구대상은 남학생이 50.5%(156명), 여학생이 49.5%(153명)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으며, 초등학교 5학년이 60.5%(187명)이고 6학년이 39.5%(122명)로 5학년이 약간 많았다.

2. 자료수집

1) 예비조사

조사도구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라남도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6년 9월 11일~2006년 9월 12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측정 도구 중 조사대상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은 조롱, 궁지, 격분과 같은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보다 쉬운 단어로 수정하였다.

2) 본 조사

전라남도 동부권 지역에 소재한 1개의 초등학교 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2006년 9월 13일~2006년 9월 15일 사이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와 보조자가 직접 배

부하여 질문지 내용을 설명하고 작성하게 하였으며 질문지 회수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학생들이 질문지에 응답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25~30분 이었다. 배부된 총 35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을 한 자료 41부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5학년 187명, 6학년 122명, 총 309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조사도구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16문항,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아버지의 양육행동 38문항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37문항으로 총 75문항, 아동이 지각한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한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박성연, 1989; 박혜경, 2002)를 참고로 4개 요인으로 구성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격성 형성에 바람직한 요인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애정·합리적, 강압적, 허용·방임적, 공격성에 보상적인 양육행동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는 설문지를 구성하고 실시할 때는 동일한 문항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 따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 양육행동 측정 답변은 Likert형 5점 척도를 이용해,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각 양육행동에 대한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하며 점수의 합이 낮을수록 각 양육행동에 대한 성향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양육행동 척도는 애정·합리적, 강압적, 허용·방임적, 공격성에 보상적인 양육행동의 네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 10문항씩 총 80문항(부모 각각 40문항씩)을 측정하였는데, 분석 시 신뢰도를 낮추는 5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총 75문항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결과 분석에 사용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는 <표 2>에서와 같이 아버지 38문항, 어머니 37문항이었다. 문항 수가 영역에 따라 불일치하므로 각 영역의 총점을 문항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09)

변인/구분	빈도(%)	변인/구분	빈도(%)
<u>아동의 학년</u>		<u>아동의 성별</u>	
5학년	187(60.5)	남	156(50.5)
6학년	122(39.5)	여	153(49.5)

<표 2>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의 신뢰도

양육행동척도		문항 수	Cronbach's α
아버지	애정·합리적	10	.82
	강압적	9	.78
	허용·방임적	10	.69
	공격성 보상적	9	.67
어머니	애정·합리적	10	.84
	강압적	10	.78
	허용·방임적	8	.68
	공격성 보상적	9	.74

<표 3> 아동의 공격성 척도의 신뢰도

공격성 척도	문항 수	Cronbach's α
주도적 공격성	10	.79
반응적 공격성	10	.83
관계적 공격성	10	.82
총 공격성	30	.91

수로 나눈 값을 양육행동 값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척도의 범위는 1~5점이 된다.

양육행동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표 2>와 같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척도의 Cronbach α 값은 .67~.82까지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 척도에 대한 Cronbach α 값은 .68~.84까지로 나타나, 둘 다 대체로 만족한 신뢰도를 가졌다.

2) 아동의 공격성 척도

아동의 공격성 척도는 Dodge와 Coie(1987)의 주도적 공격성 및 반응적 공격성과 Crick과 Grotpeter(1995)의 공격성 척도에 기초한 관계적 공격성, 그리고 세 가지 유형을 총합한 총 공격성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 반응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박혜경(2002)의 검사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총 30개 문항으로 된 척도를 구성하였다. Likert형 5점 척도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각 유형의 공격성 성향이 높고 점수의 합이 낮을수록 각 유형의 공격성 성향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공격성 척도의 신뢰도는 <표 3>과 같이 Cronbach α 값이 .79~.91로 대체로 만족한 신뢰도를 보였다.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2.0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관계, Cronbach's α, 중다회귀분석, t-test, 대응표본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격성의 전반적 경향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의 전반적 경향의 평균 및 표준편차의 분석결과는 <표 4>과 같았다.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의 평균은 3.88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의 평균은 4.09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응표본 t-test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모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의 평균값들이 중간 값인 3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아동은 부모를 대체로 애정·합리적이라고 지각하였으며, 특히 어머니를 아버지 보다 더 애정·합리적으로 지각하였다.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행동의 평균은 2.27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의 평균은 2.32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응표본 t-test 결과, 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전체적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강압적 양육행동 수준은 중간 값인 3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의 평균은 2.10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의 평균은 1.73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응표본 t-test 결과, 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부모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수준이 중간 값인 3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표 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paired t-test
애정·합리적	부	3.88	.71	-5.57***
	모	4.09	.67	
강압적	부	2.27	.67	-1.65
	모	2.33	.67	
허용·방임적	부	2.10	.53	12.63***
	모	1.73	.49	
공격성 보상적	부	2.08	.58	1.88
	모	2.02	.61	

***p<.001

<표 5> 아동의 공격성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주도적 공격성	22.83	6.21
반응적 공격성	29.80	7.71
관계적 공격성	23.00	5.89
총 공격성	74.85	16.80

<표 6>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변 수	애정·합리적		강압적		허용·방임적		공격성보상적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남 아	3.82	4.06	2.36	2.35	2.12	1.73	2.14	2.08
여 아	3.95	4.14	2.18	2.29	2.08	1.72	2.01	1.96
t	-1.62	-1.12	2.33*	.67	.76	.12	1.91*	1.61

*p<.05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아동은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허용·방임적이라고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공격성에 보상적인 양육행동의 평균은 2.08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공격성에 보상적인 양육행동의 평균은 2.02로 나타나 부모의 공격성에 보상적인 양육행동 수준은 중간값인 3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전반적으로 부모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 대체로 아동은 부모를 애정·합리적으로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를 아버지보다 애정·합리적으로 지각한 반면,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하였다.

2) 아동의 공격성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5>와 같았다.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의 평균은 22.83, 관계적 공격성의 평균은 23.00으로 각각 나타나 모두 중간 값 이하의

수준으로 낮았으나,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은 29.80으로 거의 중간 값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경우 총 공격성 평균값은 74.85로 나타나 중간 값인 90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아동은 자신의 공격성을 낮게 지각하였으며, 반응적 공격성을 주도적 공격성이나 관계적 공격성보다 다소 높다고 평가하였다.

2.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과 같았다.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수준의 평균은 남아가 3.82, 여아가 3.95로 나타났다. 또한 남이는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수준을 4.06으로, 여아는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수준을 4.14로 지각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지각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행동 수준을 남이는 2.36, 여아가 2.18로

<표 7> 아동의 성에 따른 공격성

변 수	주도적공격성	반응적공격성	관계적공격성	총 공격성
남 아	23.53	30.79	22.69	75.68
여 아	22.13	28.80	23.30	74.04
t	1.99*	2.28*	-.89	.83

*p<.05

<표 8>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아와 여아의 공격성간의 상관관계

		주도적공격성		반응적공격성		관계적공격성		총 공격성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애정·합리적	부	-.25**	-.14	-.01	-.01	-.29***	-.08	-.22*	-.06
	모	-.22**	-.05	-.01	-.01	-.26**	-.03	-.19*	-.01
강압적	부	.45***	.39***	.25**	.27**	.40***	.28**	.38***	.34***
	모	.37***	.26**	.19*	.23**	.32***	.34***	.29**	.33***
허용·방임적	부	.07	.24**	.07	.12	.21*	.24**	.17*	.21*
	모	.25**	.25**	.18*	.06	.25**	.21*	.24**	.21*
공격성 보상적	부	.31***	.17*	.28**	.19*	.35***	.13	.35***	.20*
	모	.28**	.24**	.23**	.33***	.22**	.28**	.27**	.33***

*p<.05, **p<.01, ***p<.001

지각하였고,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의 경우 남아가 2.35, 여아가 2.29로 지각하였다. 성에 따라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행동 지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아버지를 더 강압적이라 지각하였다.

아버지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수준은 남아가 2.12, 여아가 2.08로 지각하였고 어머니의 경우 허용·방임적이라고 지각한 남아가 1.73, 여아가 1.72로 나타났다. 그런데 성에 따른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지각의 차이는 없었다.

아버지의 공격성에 보상적인 양육행동 수준은 남아가 2.14, 여아가 2.01이었고 어머니의 경우 남아는 2.08, 여아는 1.96으로 지각하였다. 분석결과, 성에 따라 남아와 여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아버지의 공격성에 보상적인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하였다.

성에 따른 아동의 공격성은 <표 7>와 같았다. 전체적인 아동의 공격성을 본 총 공격성은 남아와 여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에 따라 공격성 유형에서 차이가 있었다.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의 평균은 남아가 23.53, 여아가 23.13으로 남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도 남아가 30.79, 여아가 28.80으로 주도적 공격성과 같이 남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과 총 공격성은 남 녀 간의 차이가 없었다.

3.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우선 중다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이은혜, 2006)를 거쳤다.

첫째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오류를 막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살펴서 .40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을 가지는 높은 상관정도를 보이는 변수들을 제외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의 오류를 막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중다회귀분석 후에 독립변수의 공차나 상승변량(VIF)을 검토한 결과 상승변량이 1에 접근하는지 재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의 측정치에서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더빈-왓슨(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하여 더빈-왓슨계수가 2에 접근함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9>과 같았다. 즉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행동($\beta = .39, P < .001$)과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beta = .13, P < .05$)이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변량의 20%를 설명하였다. 그에 비해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공격성에 보상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아동의 성도 가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나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아동은 아버지가 강압적

<표 9>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B	β	R ² 증가분	R ²	F
부강압	.40	.39***	.19***	.19	59.46***
모 허용·방임	.20	.13*	.02*	.20	32.64***

*p<.05, ***p<.001

<표 10>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B	β	R ² 증가분	R ²	F
부강압	.36	.28***	.08***	.08	21.64***
모 공격성보상	.25	.18**	.04**	.11	16.77***
부 애정·합리	.17	.16*	.02*	.13	13.37***

*p<.05, **p<.01, ***p<.001

<표 11>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B	β	R ² 증가분	R ²	F
부 강 압	.28	.29***	.13***	.13	9.36***

***p<.001

<표 12> 아동의 총 공격성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B	β	R ² 증가분	R ²	F
부 강 압	.95	.33***	.14***	.14	40.58***
부 공격성보상	.47	.15**	.02**	.16	24.48***

p<.01, *p<.001

이고 어머니가 허용·방임적일수록 주도적 공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았다. 즉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행동($\beta = .28, P < .001$), 어머니의 공격성에 보상적인 양육행동($\beta = .18, P < .01$)과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beta = .17, P < .001$)이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13%를 설명하였다. 그에 비해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아동의 성은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애정·합리적이고 강압적으로 지각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공격성에 보상적으로 지각 할수록 반응적 공격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았다.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행동($\beta = .29, P < .001$)이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변량의 13%를 설명하였다.

그에 비해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아버지의 공격성에 보상적인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애정·합리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아동은 아버지가 강압적 일수록 관계적 공격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총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12>와 같았다.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행동($\beta = .33, P < .001$), 아버지의 공격성에 보상적인 양육행동($\beta = .15, P < .01$)이 아동의 총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변수는 전체 변량의 16%를 설명하였다. 그에 비해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총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아동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강압적이고 공격성에 보상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전체 공격성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공격성이 증가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309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은 대체로 부모를 애정·합리적으로 지각하였고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애정·합리적으로 지각하였다. 그리고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욱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허용적이라는 정인선(2006)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이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직장 등의 이유로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므로, 자녀의 일상생활을 제한하기 보다는 지나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다른 방법으로 놀이 등의 활동을 통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며(Lamb, 1980), 아버지의 참여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이라는 점(이소은, 2007)에 비추어 볼 때, 아버지가 보다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었다.

다음으로 아동은 자신의 공격성을 대체로 낮게 지각하였다. 다만 반응적 공격성은 다소 높게 지각하였는데, 이는 정인선의 연구결과(2006)와 일치하는 것이다. 반응적 공격성은 주도적 공격성이나 관계적 공격성과는 달리 타인을 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공격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 지각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남아가 여아보다 아버지를 더 강압적이고 공격성에 보상적이라고 지각하였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문경주·오경자, 2002; 박희자, 2003)는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격성이 남성에게 허용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아버지는 여아보다 남아에게 공격성에 보상적인 양육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아동의 성에 따라 아동의 공격성은 차이가 있었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주도적, 반응적으로 공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남아의 공격성이 생후 17개월 정도의 어린 시기에도 여아보다 높다(Ballargeon et al., 2007)거나 일반적으로 남아가 보다 공격적이며(Maccoby, 1991), 외현화 공격성이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높았다는 연구(이경희·오경자, 2002; Brown et al., 2007)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 관계적 공격성은 여아가 높았다(이경희·오경자, 2002; Brown et al., 2007)고 한 연구와는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성의 하위 영역 중 외현화 공격성인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에서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점은 인정되나, 관계적 공격성에서의 성차에 관한 부분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의 강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김귀연·김경연, 2005; 정인선, 2006; Patterson, 1986, 1996)와 일치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허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정인선, 2006)와는 다소 불일치한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이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주도적 공격성은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행동에 의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공격성에 보상적인 양육행동, 그리고,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의 강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정인선, 2006; Patterson, 1986, 1996)와 일치한다. 즉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공격성에 보상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을 강화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동의 공격성과 부적 상황이 있다고 여겨지는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 행동이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을 높인다는 본 연구 결과는 추후 연구를 통해 구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에 유일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허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정인선(2006)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의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이 높다(Hart et al., 1998)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외현화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공통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행동과 공격성에 보상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총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선행 연구(정인선, 2006; Patterson, 1986, 199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행동과 공격성에 보상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전체적인 공격성을 강화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격성에 보상적인 양육행동 또한 아동의 공격성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녀양육에서 소홀히 여겨져 온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양육행동을 할 경우 아동의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자녀의 공격성 감소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제작에서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행동 감소 기법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먼저, 표집대상을 전라남도 동부권 소재의 초등학교로 한정하였고, 초등학교 남녀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대상을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구대상을 좀 더 다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정도를 측정하는 질문지가 모두 아동의 자기 보고식이어서 실제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아동의 공격성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의 공격성을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공격성 유형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과 자녀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 아버지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접수일 : 2007년 05월 15일
- 심사일 : 2007년 05월 28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7월 24일

【참 고 문 헌】

- 공인숙 (1989). 부모의 온정 및 특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 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귀연 · 김경연 (2005). 아동의 위축 및 공격성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관계: 거부적 양육행동, 또래괴롭힘, 부정적 부모표상 및 부정적또래표상의 인과효과. *아동학회지*, **26(6)**, 247-266.
- 문경주 ·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박성연 (1989).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개발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4)**, 151-165.
- 박혜경 (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 오경자 (1998). 관계지향 공격성 및 외현화 공격성과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심리학회 논문집*, 포스터, 173-187.
- 이소은 (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과 주의집중력. *아동학회지*, **28(2)**, 71-89.
- 이은혜 (2006). 아동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장미도 (1986). 아동의 공격성과 부모의 양육태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선 (2006).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행동 문제와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ker, B. L., Heller, T. L., & Henker, B.(2002). Expressed emotion, parenting stress, and adjustment in mothers of young children with behavior proble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7**, 907-915.
- Ballargeon, R. H., Zoccolillo, M., Keenan, K., Cote, S., Perusse, D., Wu, H., Boivin, M., and Tremblay, R. E.(2007). Gender differences in physical aggression: a prospective population-based survey of children before and after 2 years of age. *Developmental Psychology*, **43(1)**, 13-26.
- 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NJ: Prentice-Hall.
- Berndt, T. J. (1979).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608-616.
- Brown, S. A., Arnold, D. H., Dobbs, J., and Doctoroff, G. L.(2007). Parenting predictors of relational aggression among Puerto Rican and European American school-age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2**, 147-159.
- Crick, N. R. (1996). The role of relation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Damon, W. (1977).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San Francisco: Jossey- Bass.
- Dodge, K. & Coie, J. (1987).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58-966.
- Frodi, A., Macaulay, J. M. & Thome, P. R. (1977). Are women always less aggression than men? A review of the experiment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4(4)**, 634-660.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 McNeilly-Choque, M. K.(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 school age

-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87-697.
- Huesmann, L. R., Eron, L. D., & Dubow, E. F.(2000). Childhood predictors of adult criminality: are all risk factors reflect in childhood aggressiveness? *Criminal Behavior and Mental Health*, 12(3), 185-208.
- Lamb, M. E.(1980). The father's role in the facilitation of infant mental health.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3), 140-149.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 242-259.
- Maccoby, E. E.(1991). Gender and relationships: a reprise. *American Psychologist*, 46(5), 538-539.
- Nelson, D. A. & Crick, N. R.(200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mplications for childhoo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B. K. Barber(ed.), *Instruct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pp.161-18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O'Leary, S. G.(1995). Parental discipline mistak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4, 11-13.
- Patterson, G. R.(1986). Performance models for antisocial boys. *American Psychologist*, 41, 432-444.
- Patterson, G. R.(1996). Some characteristics of a developmental theory for early-onset delinquency. In M. F. Lenzenweger & J. J. Haugaard(Eds.), *Frontiers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pp. 81-124). N.Y.: Oxford University Press.
- Patterson, G. R., Bank, L., & Stoolmler, M.(1990). The pre-adolescent's contribution to disrupted family process. In R. Montemayor, G. R. Adams, & T. P. Gullotta(Ed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 transitional period?*(pp.107-133). CA: Sage Publications.
- Serbin, L. & Karp, J. (2003). Intergenerational studies of parenting and the transfer of risk from parent to child.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 138-142.